

1번

1. “공감이란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시문(가)와 제시문(나),(다)는 공감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발문에서 공감은 ‘상태’, ‘감정’의 공감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를 정의해주시고 비교를 할때도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2. “제시문(가)에서 아이히만은 공감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아이히만에게 있어 공감적 태도는 유태인이 당시에 가지고 있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유태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심지어는 국가적 명령이 유태인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히만의 증언은 공감적 태도의 결여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공감 실패는 잡으셨지만, 상태와 감정 모두 공감하지 못했다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후 아킬레우스 대응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3. “반면에 제시문(나)의 시적화자는 공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포스터 속 비둘기는 포스터에 갇혀 본래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시적화자는 비둘기의 습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공감하고 받아들인다. 비둘기가 노닐던 지붕마루의 쓸쓸함을 알고 마셔볼 공기와 날아갈 하늘이 없다는 비둘기에 대해 안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차라리 죽는것이 낫다는 화자의 표현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 또한 1,2번 지적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아킬레우스 다음문단을 보시면 제가 왜 이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거예요.

4. “제시문(다) 역시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게 공감적 태도를 보인다. 뤼카온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관하여 아킬레우스는 나 또한 죽는다는것을 얘기하며 뤼카온에게 일부 공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시문(다)의 뤼카온에 대한 아킬레우스의 공감의 방식은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다. 뤼카온의 죽음의 공포는 공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뤼카온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킬레우스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감정에서는 공감을 보이지만 정작 뤼카온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만약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의 중심에서 공감했다면 뤼카온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을 죽음으로 대우했다. 즉 아킬레우스는 진정한 공감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아킬레우스가 일부 공감적 태도를 보이지만, 다른양상을 보인다며 이를 ‘자기중심적 공감’으로 정의하셨는데, 사실 이는 공감에 정의에 따르면 죽는 ‘상황’에 대한 공감은 이뤘지만 ‘감정’에 대한 공감이 이뤄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셨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이히만 상황x 감정x / 시적화자 상황o 감정o / 아킬레우스 상황o 감정x 이죠. 이렇게 보셔서 대응하셨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못해 논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추가로는 발문에서 아이히만과 시적화자를 통해 아킬레우스의 공감을 설명해야되는데 이도 사라져, 발문에 요구에 불이행한 답안으로도 보여집니다.

2번

1. 첨삭 57호인 SNUESP12th님 또한 2014 공감에 대한 답안이었는데, 이 답안과 동일한 문제로 같은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2. 답안의 작성 방향자체가 잘못되어 내용보다는 형식상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3. 이 문제에 따르면 상상, 폭력, 주체의 개념을 사용하여 제시문에 도입하고 이로 인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공감에 대해서 설명해야합니다.

4. 하지만, 답안 서술에서는 3개념을 사용해 공감에 대해 이미 정의를 내려버린 상태로 제시문에 도입하는 방향이 역으로 되버려 사실상 답안에서 요구하는 공감의 정의를 제시문에서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 판단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방향자체가 잘못된 오답으로 발문 대응 2012 연세대학교 새로움 2번문제를 풀어보면서 공통점을 느껴보세요.